



제7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곱번째인 91년도에는 전국에서 총1천5백31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우수2편,佳作5편, 입선10편, 장려30편등 총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입선 4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우리집은 우유가족

이혜원

충남 서천 한산국교 6년

“빠푹, 빠푹…….”

어젯밤 일찍 일어나길 기대하며, 6시에 맞춰 놓은 시계가 경쾌하게 ‘빠푹 왈츠’를 울리며 나의 단잠을 깨웠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께서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시는지, ‘달그럭, 달그럭’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고 마당에서는 ‘잠꾸러기’ 우리 오빠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비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우유가족 중에 내가 제일 늦게 일어났다는 부끄러움에 뒷머리를 긁적거렸다.

이불을 개고, 방을 한번 쓴 나는, 어머니께서 계시는 부엌으로 ‘쫄르르’ 달려가 내 나이 답지 않게 재롱을 부리며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아이처럼

“엄마, 우유 주세요”

하며, 빈컵을 내밀었다.

“엄마, 나두 줘.”

똥똥한 몸으로 어머니께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뒤똥, 뒤똥’ 뛰어오는 오빠의 모습이 꼭 아기돼지가 엄마돼지에게 젖달라며 뛰어오는 모습을 연상케 해 ‘쿵’ 하고 웃음이 나왔다.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한 우유 한 컵씩을 마신다.

우유를 마시면, 온 몸이 상쾌해지고 건강에도 좋으며 칼슘 성분이 많아 뼈가 튼튼해지는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깅’ 하고 자전거 세우는 소리가 우유가족의 다정스런 대화에 끼여들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잘 있었어?”

색이 바랜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차가운 새벽 공기 때문에 두터운 겨울 잠바를 입으신 우유배달 아저씨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도 안녕하셨어요?”

나도 아저씨께서 내미시는 우유 3개를 건네받으며 답례를 했다.

매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시는 아저씨가 나는 오늘따라 무척 고맙게 느껴졌다.

아저씨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배달한다는 기쁨에, 이른 새벽부터 고

“

똥똥한 몸으로 어머니께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뒤똥, 뒤똥 뛰어오는 오빠의 모습은 꼭 아기돼지가 엄마돼지에게 젖달라며 뛰어오는 모습을 연상케 해 ‘쿵’ 웃음이 나왔다.

”

생하시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자부하신다며 발걸음만은 힘차다고 하신다.

‘아저씨, 매일 이른 새벽부터 우유를 배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꼭 참고 열심히 일 해 주세요. 저희 들도 우유먹고 힘내서 공부 잘하고 행동이 바른 착한 아이가 되어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에 꼭 보답할게요.’

우리가족의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를 가벼운 목례로 답하시고 묵묵히 걸어가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난 이렇게 다짐했다.

“아니, 벌써 7시잖아!”

어머니께서는 아침준비를 끝내기 위해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오빠와 나는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챙기기 위해 각각 자기방으로 향했다.

우유배달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의 생각으로 시간가는 줄 몰랐던 까닭에 늦었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아침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우유배달 아저씨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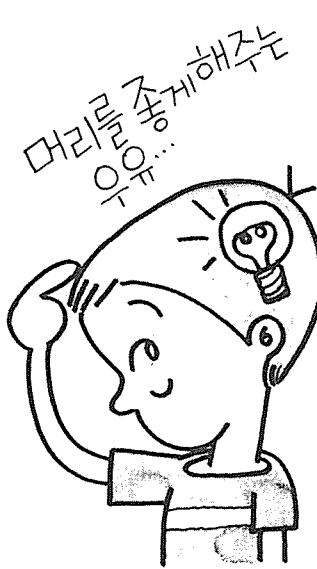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우유를 신청하는 아이들만 돈을 내고 먹게 되는데, 나라의 배려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은 공짜로 먹게 된다.

나도 우유를 먹는데, 생활이 어려워 우유를 공짜로 먹는 아이들을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우리 반 선생님께서는 우유 먹는 시간을 둘째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으로 정하셔서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 같은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 반 아이들은 우유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며 서로 이야기 한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뼈도 튼튼해지는 등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는 우유를 맛있고 즐겁게 먹어서 우유를 만드시거나 보급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뻐하시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체력은 국력’ 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먹는 우유가 우리들의 체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키워진 우리의 건강이 나라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나와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반아이들 모두,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우유를 많이 먹어서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



입선									
고마움 우유									

신우혁

경북 경주시 오룡국교 3년

나는 오늘도 벽에 기대서 내 키를 재어봅니다.

‘이젠 아무도 꼬맹이라고 하지 않겠지, 이렇게 커졌으니까.’

나는 아이들이 나를 꼬맹이라고 부를 때마다 콩나물 반찬을 해 달라고 엄마를 졸랐습니다만 콩나물을 많이 먹는다고 키는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키가 커진다, 이것은 몸이 튼튼해 진다 하면서 자꾸 주지만 아무리 먹어도 내 키는 커지지않았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커지지 원 애도 우유를 왜 안먹노.”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픈것 같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것 같아서 어릴때부터 우유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우유 안 먹을 사람.”

선생님께서 또 우유 안먹을 사람을 조사 합니다. 나는 또 손을 들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키도 쭉쭉 크고 피부도 하얘지고 힘도 세질텐데 그래도 안먹겠니?”

선생님께서 뻔히 내려다 보십니다.

그때 내 손이 슬그머니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아플 것을 생각하니 점점 힘이 없어지고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부터 내 책상에도 어김없이 우유가 놓여졌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한 설탕을 넣고 우유를 흔들어서 마셔보았지만 단맛이 없어서 더 많이 넣고 흔들어서 조금 마시고 해서 점심시간까지 먹었더니 배가 아픈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지만 설사는 나지 않았다. 설탕을 타서 우유를 마신지도 벌써 다섯 달이 지나고 운동회 연습을 한창하던 9월 피약별 아래서 운동회 연습을 세 시간을 한 우리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교실에 오니 우유가 있어서 설탕을 넣지 않고 그대로 마셨다.

“아, 시원하다.”

나는 우유 한 통을 다 마시고 시원하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함께 손뼉을 치고 있었다.

“설탕 안 탄 우유도 시원하니?”

선생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말하십니다.

“예.”

나는 우유가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설탕 없이도 우유 급식 시간이 기다려 지게 되었습니다. 그덕택에 키도 조금씩 더 커져서 지금은 앞에서 세번 째로 옮겨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유는 키를 잘 자라게 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 두 개씩 우유를 마시게 된 나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 오면 가방을 벗어 놓고 벽에 붙어서서 키를 재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키는 많이 커서 세번 째로 갔지만 아직도 내 별명은 꼬맹이 입니다. 고마운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다리라는 별명을 따고 싶습니다.

“

이젠 아무도 꼬맹이라고 하지 않겠지, 이렇게 키가 커졌으니까, 우유를 먹어 키는 많이 컸지만 아직도 내 별명은 꼬맹이 입니다. 나는 고마운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다리라는 별명을 얻고 싶습니다.

”

나는 우유대장

김 옹 환

경북 점촌시 점촌국교 5년

“야호! 드디어 145cm를 넘어섰다.”

나는 세상이 떠나갈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들어 오셨습니다.

“아니 민겸아, 왜 그러니.”

“엄마, 엄마, 드디어 내 키가 145cm를 넘었어요. 종규를 넘었던 말이에요.”

사정을 알고계신 어머니께서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신 뒤,

“민겸아, 그럼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렴.”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들뜬 가슴을 달래며 지난일 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규와 나는 1학년때 부터 같은 반이었습니다. 또, 성적도 비슷하고, 미술, 음악, 체육등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경쟁하며 지내왔습니다. 3학년때 부터는 더욱 심해져서 ‘누가 칭찬을 더 많이 받았나?’ 까지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체격 검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내게 큰 절망을 안겨준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작년만 해도 키가 거의 같았는데, 종규가 나보다 3cm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시무룩한 얼굴로 보내기 시작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하는 생각으로 공부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날은 우유신 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유좀 많이 먹으세요, 우유를 먹으면 피부도 고와지고 살도 빠지며…….”

선생님의 화나신 목소리에 나도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우유를 먹으면 키도 커지는 것은 물론 몸도 건강해 집니다.”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귀가 솔깃해 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유를 먹으면 진짜로 키가 커지나요?”

하고 물어본 나의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의 화내심에 짓눌려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뚫고 기쁨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우유를 하루에 두개씩 먹게 되었습니다. 방학때는 집에 배달된 우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년, 나도 이제 어엿한 5학년이 되었습니다.

“야호! 드디어 145cm를 넘어섰다. 여러분들도 우유를 매일 먹어보세요. 꼭 보람을 느낄것입니다. 똥똥한 성규도 키작은 총희도……”

”

지금은 우유먹기가 식생활이 되어서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될 지경입니다.
 3년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데에 기쁨을 더한 나는 다시한번 힘껏 외
 쳤습니다.
 “야호!”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꼭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똥똥한 성규도, 키작은
 총희도…….

입선

나는 우유대장

양혜영
 전북 전주 동신국교 6년

“자-내일 우유 값 가져오도록. 11월 우유다.”
 오늘 학교가 끝나기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다.
 ‘먹을 것이냐? 아니면 또 그냥 넘어 갈 것인가’ 하고 말이다.
 요즘 세상에 삼천원이 조금 못되는 우유값이 없어서 그러는건 아니다.
 사실 나는 지금 육학년이 되어 한번도 우유를 먹은적이 없다.
 작년에도 두달 정도 먹은것 말고는 전혀 먹지 않았다.
 물론 집에서는 자주 먹지만 그것도 한컵도 다 못마신다.
 사실 사학년 까지만 해도 꼬박꼬박 잘 먹었었다.
 그만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
 보름도 안돼 우유가 정말 먹기가 싫은 것이다.
 사학년때……. 그날도 우유가 먹기 싫어 집에 가면서 학교 화단에
 우유를 버린적이 있었다.

“아! 재밌다. 자영아 우리 내일도 이렇게 하자 응?”
 “좋아, 재밌다. 야”
 그런데 마침
 “애들아 너희들 뭐하니?”
 이빨사!

뒤를 돌아보니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웃으시는 거였다.
 “썩은 우유 화단에 거름 삼아 주는 구나? 안 썩도록 했어야지. 그래도 그냥 안



버리고... 참 착하구나”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빈 우유 값은 휴지통에 버려야지

이제 고학년인데 그것도 몰라?”

하시며 주우시다가

“아니 오늘 우유잖아. 세상에, 나 어렸을 땐……”

“앞으로 앓그럴게요”

정말 너무도 부끄러웠다.

지금 전학을 왔으니 망정이지 나는 육학년때 까지 교감 선생님을 피해 다녀야 했을 것이다.

그 전에도 나는 우유를 다먹지도 않고 그냥 통에 버리는가 하면 일부러 우유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 우유만 다 먹었더라도 우리집 가족들 중 유난히 작은 내가 10센티미터는 길었을 것이다.

같은 반 친구들은 가끔씩

“넌 왜 옆으로만 퍼지고 위로 안올라가니”

하고 말한다.

같은반 친구인 희연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 그저 중간 정도였다.

그런데 작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보니 누구 못지않게 훌쩍 키가 큰 것이다.

“야 너 뭐 먹었나?”

“나 방학동안 우유 많이 먹었다.”

세상에! 그저 흰 물이라고만 생각했던게 사람을 그토록 멋지게 만들다니?

그 영양있는 것을 낭비를 해버렸던 내가 무척 부끄럽다.

그리고 가끔 딸기 우유나 맛있는 초코 우유가 나오면 먼저 먹으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비단 친구 희연이의 경우만 아니더라도 우유 덕으로 건강히 된 사람이 내주 위에 얼마나 많은가?

우유로 크는 아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우유를 먹는 친구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먹는 사람들……

모두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우유야 미안하다. 정말 고마운 너를 아끼지 않고 버린건 내 잘못이었어

너도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키가 더 자라게 해주렴. 이제 난 정말 튼튼한 우유 대장이 될거야’ 내가 고마운 우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유를 먹고 물론 다른 영양소까지 잘 섭취한다면 난 키도 크고 예쁜 우유 대장을 기대할 수 있겠지?

내일 꼭 잊지 말고 할 말이 있다.

“엄마 우유 값 주세요”

라고 말이다.

“

같은 반 친구인 희연이는 중간크기의 아이였는데 작년겨울 방학이 끝나고 보니 누구 못지 않게 훌쩍키가 커졌다. 그 이유가 우유를 많이 먹었기 때문인 것을 안 나는 그저 흰물이라고만 생각했던게 사람을 그토록 멋지게 만들수 있다는 사실에 우유를 버렸던 일이 무척 후회스러웠다.

”